

## 한국의 사회위기지표와 위기수준

- 1996~1998년, 2000년에 우리나라는 높은 위기상태에 직면하였으나 2001~2008년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8년간 유지하고 있음

- 특히, 2004~2005년 위기점수는 55~56점으로 1996~2008년 중 최저점수를 보여 가장 안정사회를 보였음

- 최근에는 글로벌 금융 위기를 맞이하면서 위기수준이 전년도보다 소폭 증가하였음

### 1. 사회위기 지표개발 및 위기수준 측정의 의의

- 사회적 역동성(dynamic society)이 강해지고 삶의 질(quality of life)은 향상되었으나, 현대사회의 속성상 불확실성(uncertainty)이 증가하여 개인과 가족, 더 나아가 사회는 '위기' (crisis)를 보다 많이 인식하게 되었음
  - 따라서 한국사회의 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 하나하나를 집중 관리해 나감으로써 위기징후를 예측·예방하고, 위기발생시 위기증대 요인을 즉각 조정·개입함으로써 위기저하 정책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본 연구는 불모지(不毛地)인 사회위기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모색하고 위기수준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위기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정책적 방안을 제안하는 것임

### 2. 한국의 사회위기 지표

- 사회위기 지표의 개발은 다음의 두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짐
  - 첫째 단계, 이론 및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한국의 사회위기 및 사회불안정을 나타내는 사회위기 영역(안) 및 지표(안)를 개발
  - 둘째 단계, 개발된 영역(안) 및 지표(안)에 기초하여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분석하여 사회위기 영역 및 지표를 최종 확정
- 한국인이 판단하는 사회위기 지표는 10개 영역의 44개 지표로 제시됨
  - 고용, 교육, 주거, 인구·가족, 복지, 건강·안전, 사회갈등·문화, 불평등, 경제일반, 정치일반 등의 영역에 각 2~8개 지표가 선정

[그림 1] 한국인의 사회위기 지표



### 3.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

□ 사회위기 수준 측정은 다음의 세 단계에 의하여 이루어짐

- 첫째 단계, 1990년 이후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44개 사회위기 지표의 위기수준 변화를 지표별 0~4점 기준으로 산출
- 둘째 단계, 사회위기영역별 위기수준은 지표 별 사회위기 점수에 '지표 가중치' 를 적용하여 산출
- 셋째 단계, 한국의 사회위기 수준은 각 영역의 사회위기 점수에 '영역 가중치' 를 적용하고, 모든 영역의 가중화된 사회위기값을 모두 합하여 산출

□ 2008년 기준, 3점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의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지표는 44개 지표 중 17개 지표로 38.6%에 해당되었고, 1점 이하의 (매우) 안정된 수준에 있는 지표는 44개 지표 중 20개 지표로 45.5%에 해당되었음

- 심각한 위기상태를 의미하는 4점이 부여된 지표는 전체 44개 지표 중 8개 지표
  - 즉, 경제위기와 함께 정치위기, 지역불평등, 노사갈등이 매우 심각한 수준에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임
- 비교적 위기상태를 나타내는 3점이 부여된 지표는 전체 44개 지표 중 9개 지표
- 위기와 안정의 중간수준(보통)을 나타내는 2점대는 7개 지표로 전체 44개 지표
- 비교적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는 1점대는 44개 지표 중 45.5%인 20개 지표
- 매우 안정된 수준을 나타내는 0점대, 즉 1점 미만의 지표는 없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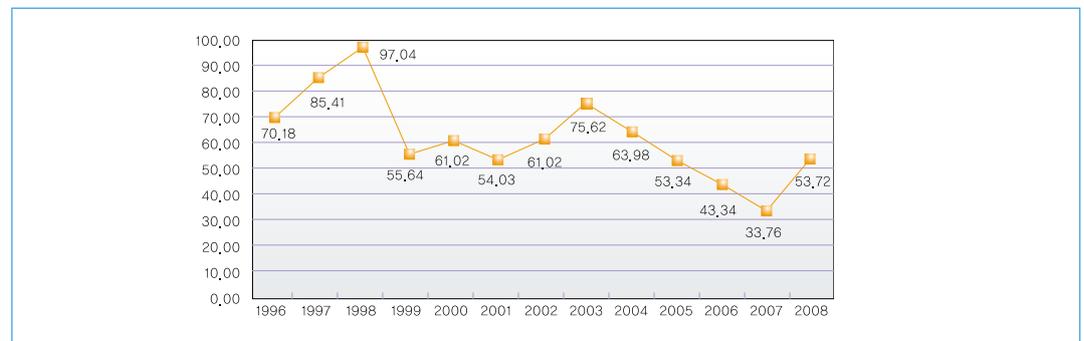
[표1] 영역별 고(高)위기 지표(2008년 기준)

사회위기 영역	심각한 위기 (81~100점; 4점 기준 3.2점 이상)	비교적 위기 (61~80점; 4점 기준 2.4점 이상)
고용	• 실업률	• 근로빈곤자수
교육	• 중·고등학교 중퇴비율	• 자녀사교육비 지출률 • 학생범죄인원
주거	-	• 주거비 지출률 • 자가 보유율
인구·가족	• 고령화지수 • 출산율	-
복지	• 요보호아동수	• 연금수혜비율
건강·안전	-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사회갈등·문화	• 파업손실일수	-
불평등	• 지역간 소득격차	-
경제일반	• 원유가 • 소비자물가지수 • 경제성장률 • 환율	-
정치일반	• 투표율 • 지역별 정당득표집중률	-

□ 10개 영역 위기수준의 시계열 변화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100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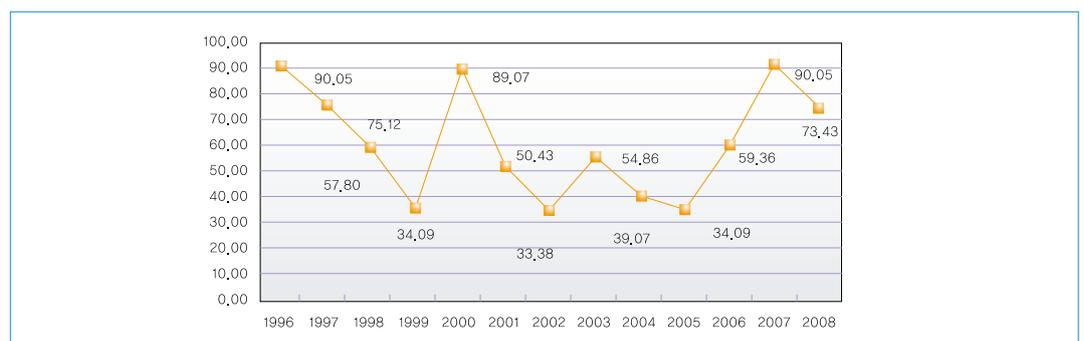
○ 고용영역의 위기수준은 2007년 33.76점으로 매우 낮았으나 2008년에 약 20점이 상승하여 고용안정을 위한 정부의 대책마련이 필요함을 시사

[그림 2] 고용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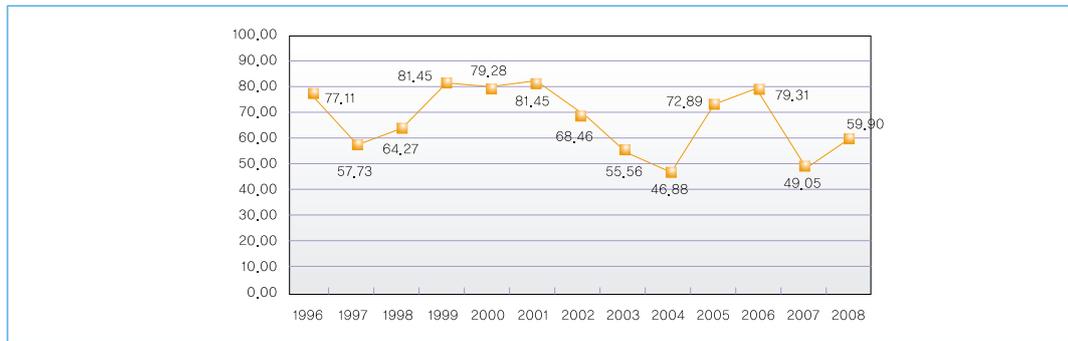
○ 교육영역의 위기수준은 2001~2006년 비교적 안정적이었으나 2007~2008년 상승함으로써 한국인은 교육영역에서 사회위기를 체감하고 있음을 시사

[그림 3] 교육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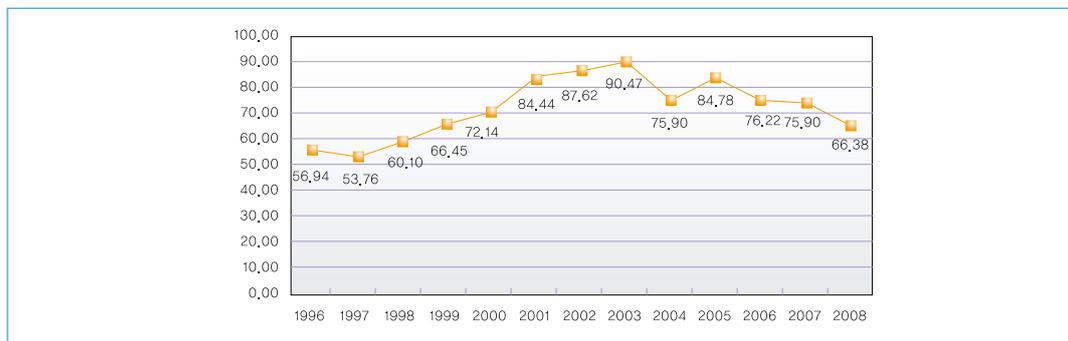
○ 주거영역의 위기수준은 급증하여 2005~2006년 72~79점을 나타냈으나 2007~2008년에는 다시 감소된 49~59점을 보이면서 국민의 위기체감도는 다시 안정적인 상태로 회복되었음

[그림 4] 주거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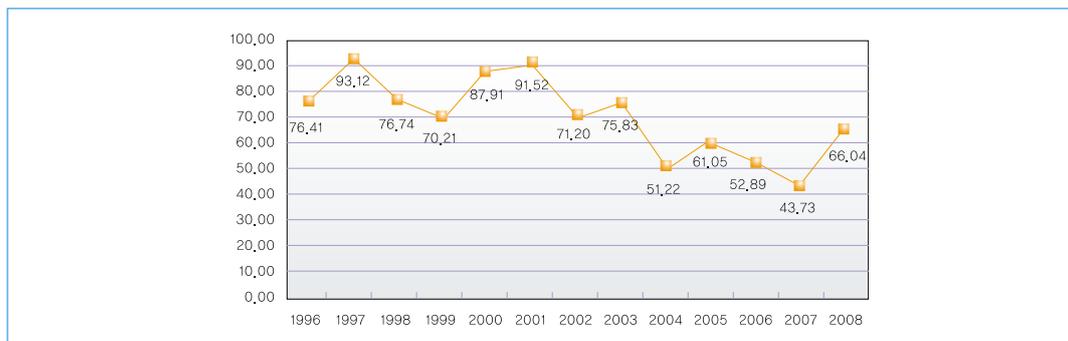
○ 인구·가족영역의 위기수준은 2001~2003년, 2005년에 높았으며, 유년인구가 급속히 감소하고, 이로 인해 총부양비의 위기점수가 낮아지면서 2006~2008년 이 영역의 위기점수는 66.38~76.22점으로 비교적 안정화되었음

[그림 5] 인구·가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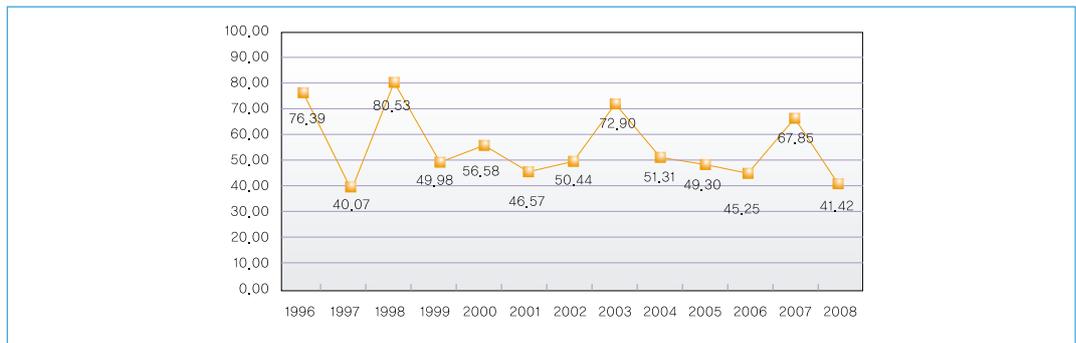
○ 복지영역의 위기수준은 2007년 40점대를 기록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노후대비를 위한 개인·사회의 준비가 2000년에 들어서 시작하게 되었고 요보호아동을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2000년대에 강화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6] 복지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 건강·안전영역의 위기수준은 1998년 IMF 경제위기 당시에 급속도로 증가하여 80.53점을 나타냈으나 IMF전인 1997년, 가장 최근인 2008년에는 매우 안정적 상태인 40점대 초반의 위기점수를 보였음

[그림 7] 건강·안전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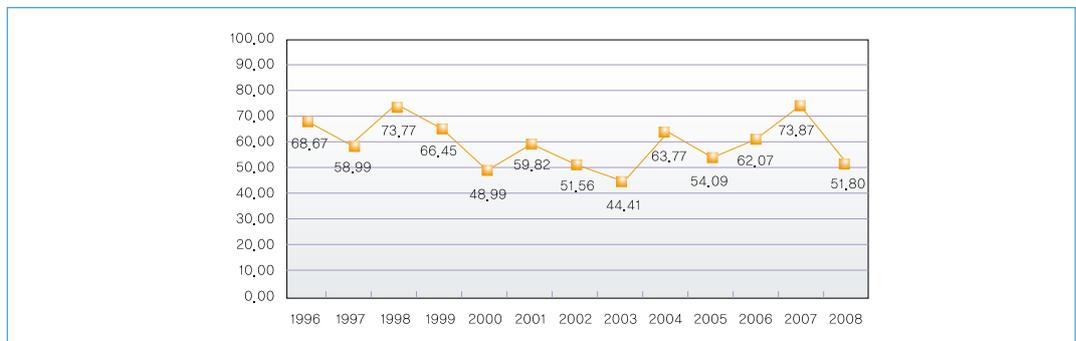
○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위기수준은 1996년, 1998년, 2000년, 2002년에 높았는데, 특히 1998년은 100.00점으로 IMF시기 노사간 갈등이 매우 심각하였음을 보여줌

[그림 8] 사회갈등·문화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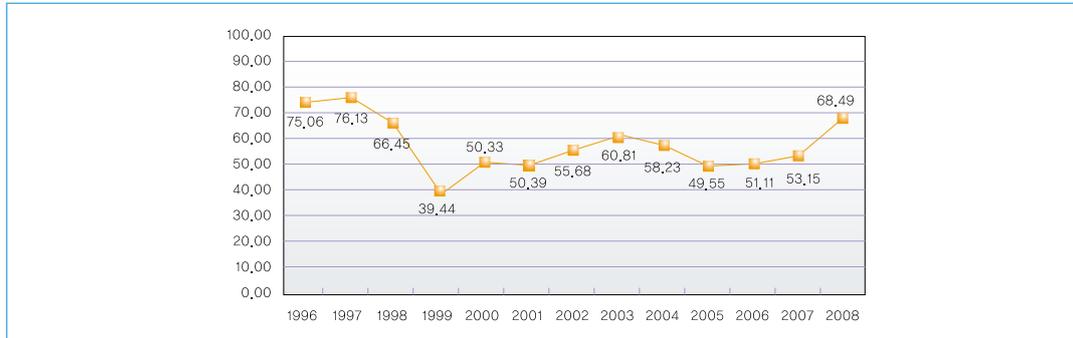
○ 불평등영역의 위기수준은 1996~1999년, 2004~2008년에 높았는데, 특히 1996~2008년 중 가장 높은 위기수준은 2007년 73.87점이었음

[그림 9] 불평등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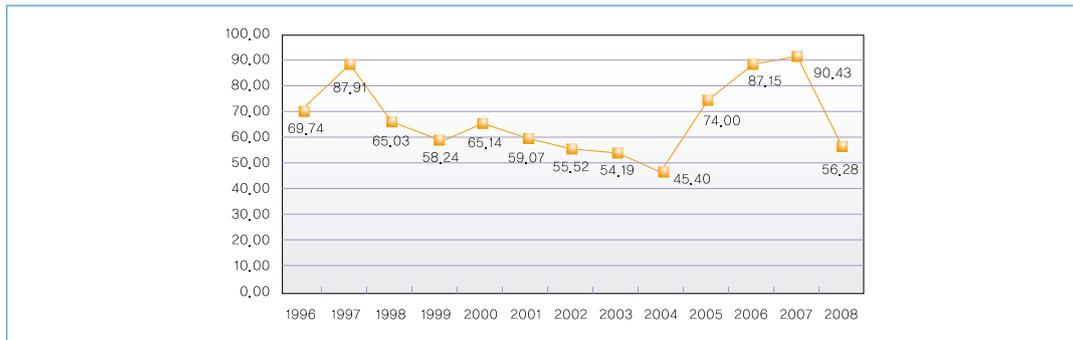
○ 경제일반영역의 위기수준은 1996~1997년을 제외하면 2008년 최고치를 보였는데, 이는 원유가,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도에 비해 높아졌기 때문으로 판단

[그림 10] 경제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 정치일반영역의 위기수준은 1997년, 2006~2007년 높은 수준을 보였는데 2007년의 위기 점수는 90.43점으로 최근 13년 중 최고치이었음

[그림 11] 정치일반영역의 사회위기수준 연도별 추이



□ 보다 쉽게 판단하기 위하여 영역별 위기수준을 백분율로 환산하면 다음과 같음

- 1996~2008년 기간 중 한국사회는 심각한 위기(81~100점)를 맞은 경험은 없었으나 대부분 비교적 위기(61~80점)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비교적 위기 중에서 위기수준이 높은 70점 이상의 위기상황은 1996년과 1998년에 경험한 적이 있음
- 또한 보통(41~60점)의 상황은 1999년, 2004년~2008년이었음
-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2005년 최저점(55.64점) 이후 2006년에는 60.75점으로 상당히 상승했으나 이후에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

[표 2] 영역별 위기수준 변화추이의 백분율 환산

사회위기 영역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고용	70.18	85.41	97.04	55.64	61.02	54.03	61.02	75.62	63.98	53.34	43.34	33.76	53.72
교육	90.05	75.12	57.80	34.09	89.07	50.43	33.38	54.86	39.07	34.09	59.36	90.05	73.43
주거	77.11	57.73	64.27	81.45	79.28	81.45	68.46	55.56	46.88	72.89	79.31	49.05	59.90
인구·가족	56.94	53.76	60.10	66.45	72.14	84.44	87.62	90.47	75.90	84.78	76.22	75.90	66.38
복지	76.41	93.12	76.74	70.21	87.91	91.52	71.20	75.83	51.22	61.05	52.89	43.73	66.04

사회위기 영역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건강·안전	76.39	40.07	80.53	49.98	56.58	46.57	50.44	72.90	51.31	49.30	45.25	67.85	41.42
사회갈등·문화	80.89	37.50	100.00	75.48	87.50	43.87	93.87	50.24	69.34	31.13	61.79	31.37	68.16
불평등	68.67	58.99	73.77	66.45	48.99	59.82	51.56	44.41	63.77	54.09	62.07	73.87	51.80
경제일반	75.06	76.13	66.45	39.44	50.33	50.39	55.68	60.81	58.23	49.55	51.11	53.15	68.49
정치일반	69.74	87.91	65.03	58.24	65.14	59.07	55.52	54.19	45.40	74.00	87.15	90.43	56.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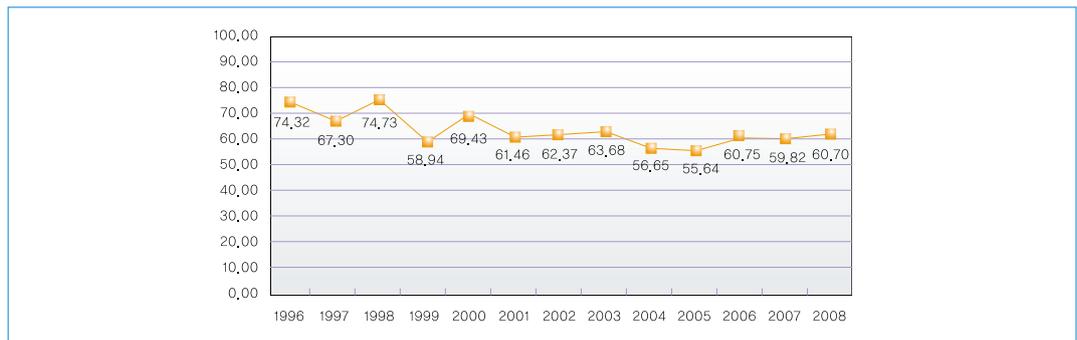
□ 영역별 위기수준을 2008년 기준으로 살펴보면,

- 매우 안정(1~20점), 비교적 안정(21~40점), 심각한 위기(81~100점)로 나타난 영역은 없었음
- 보통(41~60점)으로 나타난 영역은 고용(53.72점), 주거(59.90점), 건강·안전(41.42점), 불평등(51.80점), 정치일반(56.28점) 등 5개 영역이었음
- 비교적 위기(61~80점)로 나타난 영역은 교육(73.43점), 인구·가족(66.38점), 복지(66.04점), 사회갈등·문화(68.16점), 경제일반(68.49점) 등 5개 영역이었음

□ 한국사회의 사회위기 점수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996~1998년, 2000년에 우리나라는 높은 위기상태에 직면하였으나 2001~2008년에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8년간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음
- 특히, 2004~2005년 위기점수는 55~56점으로 1996~2008년 중 최저점수이었으며, 국민의 사회위기체감도는 1990년대 후반보다 2000년에 들어서 낮아졌음
- 다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전년도보다 약 1점의 위기수준이 증가하였음

[그림 12] 한국의 사회위기수준 변화추이(백분율 환산)



## 4. 정책 과제

□ 사회위기에 대한 학문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다학제적 접근에 의한 사회위기의 개념 및 이론 정립
  - 한국사회에서 사회위기의 개념적 정의와 이론을 확립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다학제적으로 이루어져야함
  - 사회위기를 학문적으로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 가칭 '사회위기학회'를 설립, 운영하고 학문적 측면에서의 국제협력을 강화함

○사회위기지표의 지속적 개발 및 연구

- 사회변동에 따른 새로운 사회위기지표가 개발되고, 관리되어야 함
- 개발된 사회위기지표의 통계생산과 계량화 노력이 요구됨
- 사회위기 수준을 측정하는 다양한 방법 개발 필요

□ 사회위기에 대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사회위기 관리체계 구축: 조기대응체계

- 사회위기관리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예방 및 조기대응체계를 구축함
- 관계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가칭) '사회위기관리위원회' 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사회위기의 다양한 형태에 적극적으로 대처
- 국책연구기관에 사회위기 전담 연구부서를 설치, 운영하여 사회위기의 지표 개발과 개발된 지표의 지속적 관리, 사회위기 모니터링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

○위기수준 저하 정책은 다음과 같이 제시됨

영역	정책제언
「고용」 영역	- '평생직장' 의 개념을 확립하고, 조기퇴직 및 명예퇴직을 자제토록 권장 - 「일자리 확대와 일자리 나누기 사업」 병행하여 추진 - 비정규직 근로빈곤층을 감소하는 방안 강구 - 청년실업을 해소하는 방안 모색
「교육」 영역	- 중·고등학교 학업 중단자 발생을 예방하고 복학을 지원 - 학생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문제학생의 모니터링 강화와 일탈청소년 보호체계 내실화
「주거」 영역	- 지역별 필요주택수를 감안한 적정량의 주택 공급 - 안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인구·가족」 영역	- 고령사회대책의 효과성 검토와 정책의 내실화 도모 - 「저출산대책」 검토와 신규 정책개발·추진 - 과밀인구 해소와 지역 균형적 '삶의 질' 유지를 위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대책 강화
「복지」 영역	- 혼인상태에 관계없이 아동의 부모양육 책임 강화 - 노후의 생활안정 및 건강을 위한 정책 강화
「건강·안전」 영역	- 법정 및 유행성 전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지역사회중심의 신속한 치료체계 구축 - 신종바이러스 백신개발의 지원을 강화하고 적정량을 항시 비축
「사회갈등·문화」 영역	- 사회갈등 해소를 위한 거버넌스를 강화 - 대화중심의 노사문화를 확산시킴 - 환경갈등에 대한 적극적인 해법 강구 -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적극적으로 대응 - 사회통합 제고를 위한 공동체 문화 형성을 모색함
「불평등」 영역	- 신빈곤과 소득양극화를 해소방안 강구 - 임금 등 근로조건 등에서의 성평등 강화 - 지역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범정부차원의 대책을 지방자치단체장과 함께 강구
「경제일반」 영역	- '국제유가 연동제' 및 '유류안정기금' 을 적정수준에서 운영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유가안정을 도모하여 국민의 부담을 감소토록 함 - 물가관리를 강화하고, 물류의 유통단계를 과학화하며, 소비자 피해사례에 대한 구제를 내실화 - 기업이 부담 가능한 환율을 유지토록 통화관리정책을 강화하여 기업경쟁력 약화 방지
「정치 일반」 영역	- 국민의 정치에 대한 신뢰감을 증대시킬 수 있도록 정치인 스스로 노력 - 지역중심의 정당운영에서 정책중심의 정당운영으로 적극 전환 - 정당의 리더십과 국민의 팔로십의 생산적인 결합을 모색

김승권 (복지서비스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문의 (02-380-8212)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의 발간자료에서 온라인으로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http://www.kihasa.re.kr/html/jsp/public/public_01_01.jsp)